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선교보고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김광성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설교자

6월의 선교사(오구원)를 위한 기도

피난처 있으니(찬 70)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주를 예배합니다

네팔 선교사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6:16-40

복있는 사람들

“빌립보 감옥에서”

오 신실하신 주(찬 393)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6월의 선교사는 오구원 선교사(C국)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오늘 예배 시간에 네팔 김광성선교사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4.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간: 6/27(주일) - 7/1(목) (문의 - 차유미)
5. 오늘 예배 후 친교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6. 6월 29일(화)에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교회 짐을 모두 옮겨야 합니다. 참여 가능한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양명철)
7. 오현석-오아름 성도 가정의 딸 영현이가 유아세례 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물의 끓는점과 물의 어는점을 온도의 표준으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온도눈금을 매긴 것을 우리말로 “섭씨”온도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셀시우스(Celsius)”가 고안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 한자 표기가 “섭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섭씨”는 “섭이수 씨(氏)가 만든 온도 표기”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용하는 “화씨”는 독일학자 “파렌하이트(Fahrenheit)”가 고안했고, 이 사람 이름의 한자 표기는 “화륜해”입니다. “화씨”도 마찬가지로 “화륜해 씨(氏)가 고안한 온도표기”라는 뜻입니다. 온도 표기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표사유피 인사유명(豹死留皮 人死留名)”이란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말은 ‘남긴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한다’에 초점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살려 풀어보자면, “짐승도 가죽을 남겨 세상에 이익을 주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훌륭한 일을 해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바꾸어 보면 이 말은 결국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제국의 황제 벨사살이 하나님으로부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를 보게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이 제국의 황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참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열매 없이 앞만 가득한 무익한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열매맺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